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만나세요

3~10월 '11시 클래식 산책'·'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등 다채

광주문예회관 기획 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에서 공연하는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기획공연 '11시 클래식 산책',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계획을 최근 내놓았다. 매 연주회마다 새로운 시도, 색다른 분위기, 짜임새 있는 기획을 선보이는 이들 공연은 오는 3월부터 차례로 광주 관객을 만난다.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공연기획자이자 클래식 가이드인 김이곤씨가 해설자로 나서는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뒤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김이곤씨의 깊이 있는 해설을 담은 이 공연은 올해 8차례 무대에 오른다.

오는 3월12일 봄을 알리는 첫 공연은 '오페라의 유령', '유쾌한 미망인'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꾸며진다. 이어 4월19일에는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브람스, 바르톡 그리고 퀸이 써내려간 음악의 서사시 '랩소디'를 이야기와 함께 듣는다. 드보르작의 피아노 삼중주 '둠키'와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 등 발라드와 탱고는 5월7일 트리오알투스의 연주로 만난다. 또 '엄마야 누나야', '나뭇잎배' 등 아름다운 노래말과 선율을 크레스코 앙상의 연주와 함께 음미한다(6월11일).

하반기에는 '자유와 정열의 여인 카르멘'(7월16일), '콰르텟 뮤즈의 클래식 바캉스'(8월13일), '악마의 테크닉, 리스트와 파가니니'(9월10일), '슈베르트 겨울나그네'(10월8일)가 이어진다. 1만원의 관람료를 내면 공연 뒤 커피와 빵도 즐길 수 있다.

보컬리스트 시나

첼리스트 송영훈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과 클래식 초보·입문자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올해 3년째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첼리스트 송영훈이 해설자로 나서는 렉쳐 콘서트 '클래식 큐레이터:낭만에 대하여'가 오는 3월21일 열린다. 송영훈은 드뷔시의 '달빛'과 슈베르트의 '마왕', 슈만의 '헌정' 등을 이소란·변현정(바이올린), 이신규(비올라), 박진형(피아노)과 함께 연주한다. 음악과 더불어 마네, 모네 등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

4월18일에는 피아니스트 박진형이 해설을 맡아 쇼팽의 음악과 지브리 OST 속 쇼팽 풍 편곡을 연주한다. 또 '3대 테너'라 불렸던 '호세 카레라스 vs 플라시도 도밍고' 공연은 테너 최원휘와 김성현의 해설·연주로 5월16일 열리며 쇼팽과 리스트의 우정과 삶, 음악세계는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씨가 안내한다(8월22일).

재즈피아니스트 윤한의 '쉘 위 재즈'(6월20일)로 재즈의 매력에 빠지고 '애니메이션 OST 어벤져스 페스티벌'(7월18일)에서는 '아이언맨' 영웅 테마곡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지브리 스튜디오의 음악을 비교해본다.

마지막 무대는 영화음악의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의 작품들로 채워진다. '시네마천국' 등의 감동을 첼리스트 송민제와 아르츠 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느껴본다. 매달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청소년 무료 관람·일반 2만원.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공연산책'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공연산책'은 바쁜 일상 속 쉼표를 찍는 휴식 같은 소극장 공연이다. 오는 10월까지 팝·재즈·퓨전국악·대중음악·세미클래식 등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음악으로 매달 공연을 연다.

3월27일 첫 공연의 문은 실력파 보컬리스트 시나가 연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샹송 기반의 프렌치 팝을 부르며 프랑스 음악여행을 떠난다. '장미빛 인생', '감탄(L'emerveillement)' 등 익숙한 노래도 들려준다.

드러머 김홍기가 이끄는 어쿠스틱 그룹의 '타임 인 재즈'(4월22일), 아이리쉬 포크 싱어송라이터 박혜리의 '에메랄드 빛 전원, 아일랜드 '(5월29일), 퓨전 퍼커션 밴드 폴리의 '라틴 클래식'(6월26일), 플라멩코 가수 나엠의 '플라멩코, 영혼의 자유'(7월24일), 살롱 드 오수경의 '살롱 드 탱고'(8월28일),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장흠이 이끄는 앙상블 오데움의 '냉정과 열정 사이'(9월25일),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의 공연(10월30일)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 7시 30분 공연.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백희준 기자 bhj@

우일선 선교사 사택, 미디어아트 전시장 변신

아트 그룹 '씨샵플러스' 내달 2일 미디어 파사드 공연 '22人'

광주 양림동의 근대 공간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아트 그룹 '씨샵플러스(C#+)'는 오는 3월 2일 오후 7시 미디어 파사드 공연 '22人'을 무대에 올린다. '22人'은 우리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장소에 기술이 접목된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콘텐츠다. 1930년대 양림동에서 한센병자와 걸인, 고아, 과부들을 돌보던 22명의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22개의 물방울이 빛으로 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과 공연을 맡은 '씨샵플러스(C#+)'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이 진행하는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제3기 지.스타트업(G.Startup)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콘텐츠제작 기업으로 한국화가로 활동하며 기획과 연출을 맡은 최나래 작가와 미디어 아티스트 문창환 작가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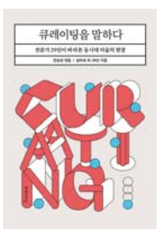
두 사람은 우일선 사택이 1930년 지어진 광주 최초의 서양건축으로 역사성을 담고 있고, 주택이 위치한 양림동 역시 문화의 거리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이곳을 작품 장소로 선택했다.

작품을 제작한 문작가는 올해 중국 호남성 장사시 춘절 기념 미디어 아트쇼를 연출했으며 2019 김냇과 청년작가 지원전에 선정돼 10월 개인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씨샵플러스(C#+)'는 이번 파사드 공연을 계기로 젊은 작가들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은 "앞으로도 광주만의 이야기와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1일에는 리허설이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문가 29인이 바라본 동시대 미술의 현장

전승보 '큐레이팅을 말하다'



국내 미술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동시대 큐레이팅 책이 나왔다.

전승보 현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엮은 '큐레이팅을 말하다-전문가 29인이 바라본 동시대 미술의 현장'(미메시스)에는 국내 큐레이터 1세대부터 신진 독립큐레이터, 미술평론가,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글들이 담겼다.

책은 '21세기 미술관과 큐레이팅', '예술정책과 큐레이팅', '큐레이터십과 큐레이팅', '미술 교육과 큐레이팅'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전승보 관장은 '전시 기획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 I'을 집필했으며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은 '한국비엔날레의 운영 현황과 사회 문화적 관계'에 대한 글을 실었다. 또 2018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참여하기도 했던 정연심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가 '동시대 미술과 아카이브 전시'를,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나는 진정 대한민국의 큐레이터가 맞는가-전시기획현장에서의 체험적 자문자답'을 썼다.

책에는 그밖에 반이정 미술평론가,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김윤경 구글 아트 앤 컬쳐 프로그램 매니저, 김희영 국민대 미술학과 교수,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 학과 교수,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등의 글도 실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